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유 현 옥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 혜 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서울과 경기 지역 중학생에게 청소년 또래애착, SNS 중독경향성,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492명의 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래애착의 세 하위요인과 SNS 중독경향성간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애착과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애착 차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또래애착,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SNS 중독경향성

* 본 연구는 유현옥(2015)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 02-300-0899, E-mail : hyhong@mju.ac.kr

2010년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단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현재 국내에서만 4천만 명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선두로 3천만 명이 넘는 카카오톡스토리, 1천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상호, 2013).

SNS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현상은, SNS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연결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안정민, 2011). 사람들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면서 타인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 SNS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여 정체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 맺기를 통해 소외되지 않으려하고 타인으로 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오윤경, 2012). 이용자들은 특히 모바일 SNS에 대해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친숙하게 여기는데, 이를 통해 폭넓은 사회적 범주를 형성하고 기존 대인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도 한다(최세경, 궤규태, 이봉규, 2012).

그런데,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SNS의 확산은 청소년을 비롯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SNS 이용에 대해 과도한 시간투자와 집착, 과잉소통과 몰입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SNS에 올라오는 새 글, 친구들의 반응이나 댓글 등 새로운 소식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조다현, 2013). 이러한 SNS 중독경향성이란 병리적인 중독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SNS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SNS 사용시간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업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오윤경, 2012). 이상호(2013)는 SNS 중독성향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는 달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업데이트에 대한 강박적인 관심과 의존성을 가지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SNS 중독경향성은 과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SNS로 옮겨가는 사이버중독의 일종으로 ‘관계집착형 SNS 중독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SNS 중독경향성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집단속에서 내소외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관계와 활동을 살피고, 현실이 아닌 사이버상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것으로, 2010년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현상의 하나이다(이상호, 2013).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성인보다 약 2.9배 높고, 학령별 스마트폰 위험군에서는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서비스는 SNS라고 하였다. 하루 평균 SNS 이용횟수와 시간, SNS 과다 사용시간으로 인한 어려움, 일정시간 동안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SNS 이용 후 학습에 끼치는 피해정도, 현실관계보다 SNS가 편한 정도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자가 일반 사용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한편, SNS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보다 관계성 기능이 뚜렷하며 이러한 기능은 또래관계를 중시여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특징과 관련이 된다(강지혜, 2013). Livingstone(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SNS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표현의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또래간 관

계성 기능이 두드러지는 SNS에 대해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이 중독경향성을 보이는 요인들 가운데 또래애착을 살펴볼 수 있겠다.

또래애착은 또래와 맺는 정서적 유대로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또래간의 애착이 자기개념, 심리적 적응, 신체적 건강으로 연결된다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친한 친구는 친밀감과 개방의 대상이자, 중요한 인지, 정서적 자원으로 기능하며(Hazan & Zeifman, 1994; Wilkinson, 2008), 친밀한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면서도 새로운 인간관계와 친밀한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극적인 시기(황창순, 2006)로서 또래로부터 지지와 애착을 발견하게 되며 우정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청소년들은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때나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나 다른 성인의 충고보다 또래와의 의논결과를 더욱 중요시하며(Ainsworth, 1989),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또래의 수용은 대인관계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소속감을 주어 청소년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노향희, 2007).

또래애착이 안정되면 친밀감의 원천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고, 타인의 신뢰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미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자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래애착이 높은 경우, 부정적인 비행행동이 증가하거나(강진아, 2009), 또래동조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이 증가한다(김정남, 2010)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도 있었다.

또래애착이 낮은 경우,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또래에서 수용받지 못한 경험은 각종 범죄,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행동, 외로움,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신병리 등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게 된다(김진아, 2011). 친밀한 친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송미옥과 이승희(2011)는 연구를 통해 또래관계의 특성은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은 소수의 또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또래에 의해 적극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비행과 공격성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다.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을 신뢰하고 또래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연결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SNS상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애착의 뼈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애착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SNS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소속감과 애착욕구를 해소하는데 SNS가 대안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Ozad & Uygurer, 2014). 또한, 10대 청소년들은 ‘나’를 표현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또래집단속에서의 ‘나’를 표현하는데 더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 청소년들은 SNS에서 기회를 갖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타인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Livingstone,

2008).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페이스북 사용과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에서,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페이스북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며, 회피애착이 높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덜 사용하고 덜 개방적이며 페이스북 사용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Oldmeadow, Quinn, & Kowert., 2013). 애착 형태에 따라 SNS의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불안정한 애착은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피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잊거나 억누르기 위해 SNS를 사용하지만, 이로써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도전은 멈추게 되는 것(Nitzburg, & Farberl, 2013)이라 하였다.

그런데,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한 변인으로 우울이나 외로움(박웅기, 2013; 오윤경, 2012; 최은진 등, 2012; Moreno et al., 2011; Spraggins, 2009; Wan, 2009), 불안(유현숙, 2013; 이선자, 2013; Koc & Gulyagci, 2013; Watson, 2007),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정체감(서거, 2013; 조성현, 서경현, 2013; Pelling & White, 2009), 자기애성향(조성현, 서경현, 2013; Kuss & Griffiths, 2011), 자존감(황희은, 2014; Spraggins, 2009)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중학생이 SNS에 몰두하는 매개변인으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은 자기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판단의 정도로서 개인적인 평가를 말한다. 즉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환경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중학생은 초기 청소년기로서 신체적, 생리적인 성장이 자아 의식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는 때이다. 초등학생 시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

하고, 학업 등으로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자기개념의 하나인 자존감이 발달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또래관계에서 타인에 의해 그 자존감이 인정되면서 안정되기 시작한다(김태련 외, 2004).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있고 능력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가진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환경 적응력이 낮고 부정적인 사고와 중독과 같은 일탈적인 행동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형진, 이정기, 2012).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며 타인을 신뢰하고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에 바탕을 둔 가치있고 긍정적인 작동모형을 형성한다. 이는 높은 자존감, 안정된 자존감과도 관련이 된다. 반면에 애착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하다고 지각하여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존감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자존감 안정성이다. 자존감 안정성은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변화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정도로서,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는 자존감에 비해 안정성과 불안정성으로 구분된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을 가치있고 긍정적으로 여겨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타인을 괴롭히거나 학업과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분노나 적대감을 더 많이 표현하고 적응상 어려움을 겪는다(Kernis, Grannemann, & Barcly, 1989)하였고, Rosenberg (1985)도 불안정한 자존감은 불안, 우울, 적대

감, 공격성과 관계가 있었고, 자존감이 불안정할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 자존감의 개념에 수정이 이뤄지면서 방어적 자존감, 불안정한 자존감 등의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Kernis & Goldman, 2005), 자존감의 불안정성과 안정성을 재는 척도가 개발되었다(Kernis & Goldman, 2005; 장재원, 신희철, 2011). 박미향, 김완일(2014)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Noser & Zeigler-Hill, 2014), 경조증 성향이 높고, 역기능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알콜이나 마약을 남용하는 경향, 자존감이 불안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낮았다(Bentall, Myin-Germeys, & Smith, 2011). 박승민, 강민철, 김은하(2015)는 자존감의 발달단계 중 중고등학생 시기는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시기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 가정 등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또래애착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Armsden & Greenberg, 1987),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나, 또래관계가 좋을 경우 친구관계를 통해서 격려, 믿음, 가치감 등을 형성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Bolger, Patterson, Kupersmidt, 1998), 또래애착은 학대경험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이렇듯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존

감이 높았고, 부정적인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긍정적인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청소년의 자존감의 경우 또래애착과 비행을 통해 증가(우성범 외, 2012)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존감이 자존감 안정성과 조합을 이룰 때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teinfeld, Ellison과 Lampe(2007)는 자존감이 낮은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불안과 회피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에게 페이스북이 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경험하여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좌절된 대인관계의 욕구를 회복하기 위해 SNS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황희은, 2014). Tazghini와 Siedlecki (2013)는 낮은 자존감과 페이스북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사회적 보상기설을 예로 들며 직접적인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을 겪는 사람들이 보상적 수단으로 SNS를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간접경험 및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NS에 몰입하고 중독 경향성을 갖게 된다 하였다. 청소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며(Sullivan, 1953; Wilburn & Smith, 2005),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좌절된 대인관계의 욕구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해 SNS의 사용에 몰두할 가능성이 많으며, 자존감과 SNS 중독 경향성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그 관계를 사회불안이 매개하고 대인관계 지향성이 조절효과를 보였다(황희은, 2014).

전효정(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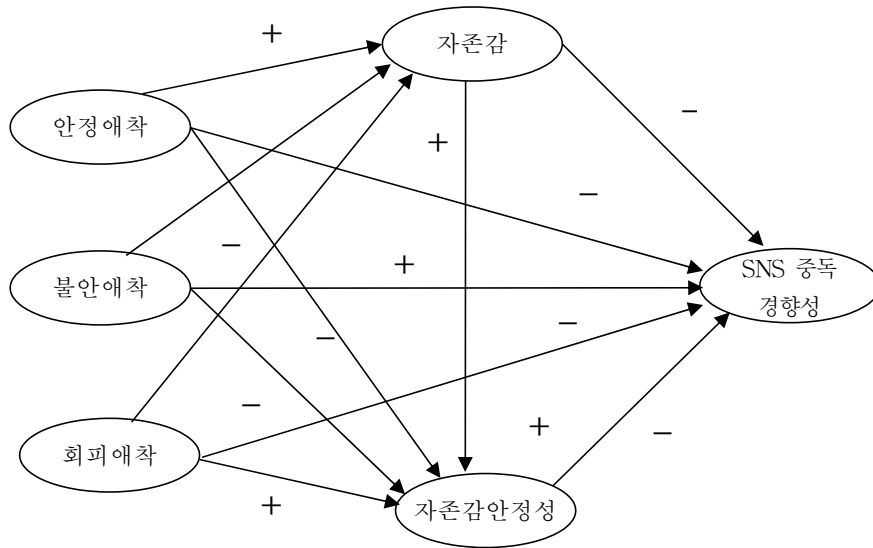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험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현재 친구애착이 대학생의 일시적 외로움에 영향을 주어 다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준다 하였으나, 애착의 하위요인이나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우형진과 이정기(2012)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등 다양한 미디어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 하였으며,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포르노 몰입 및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성 높은 자존감’이 사회일탈적 행위의 설명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Kernis & Goldma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중학생이 또래애착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몰두하는 SNS에 중독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또래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경기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54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가운데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부실기계 응답자를 제외한 49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 242명(49.2%)과 여자 250명(50.8%)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2학년 184명(37.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 172명(35.0%), 1학년 136명(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한국판 청소년 또래애착 척도

Wilkinson(2008)이 개발한 청소년또래애착 척도(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이하 AFAS)를 최영희 등(2012)이 번안하여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또래애착을 김미진(2014)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사용했다. 47명의 중학생에게 부모또래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이하 IPPA)와 함께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Cronbach's α 가 안정애착 .92, 불안애착 .78, 회피애착 .74로 IPPA보다 높았다. 이 척도는 가장 친한 친구관계내 내적작동모델에 근거한 주요 애착 차원들, 안정, 불안, 회피 등 세 가지 애착차원을 측정한다. Wilkinson(2008)의 연구결과에서 AFAS 불안, 회피차원이 IPPA보다 청소년의 적응을 더 일관성 있게 예언한다고 나타났다. 총 25문항으로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에 따라 각 차원의 애착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최영희 등(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안정애착 .89, 불안애착 .78, 회피애착 .70으로 나타났다. 김미진(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안정애착 .91, 불안애착 .77, 회피애착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91, 불안애착 .75, 회피애착 .69로 나타났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오윤경(2012)의 질문지에 포함된 11문항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뽑은 9문항을 추가하여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SNS 집착 및 금단 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보고한 Cronbach's α 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91, SNS 과잉소통과 몰입 .86,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78, 그리고 전체 문항 .9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3, 집착 및 금단 .86, 과잉소통과 몰입 .86, 과도한 시간소비 .78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이훈진, 원호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척도이다. 단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문항이며 역채점 문항은 3, 5, 8, 9, 10이다.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장재원과 신희천(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 -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8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시간과 상황에 걸친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 및 경험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단일변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번 외에는 모두 역채점한다. 5점 척도상에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원저자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였고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2012)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의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안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SNS 중독경향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또래애착의 세 하위요인과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다섯째,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과 변인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고, 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시 적합지수인 절대적 적합지수인 RMSEA와 상대적 적합지수인 TLI와 CFI를 이용하는데,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는 .05~.08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

다(홍세희, 2000). 여섯째, 중학생의 불안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간접 경로들의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그리고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불안애착은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불안애착이 낮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높고,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회피애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은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에 대해서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은 가설에서 부정 상관을 예상하였으나, 과잉소통몰입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불안애착을 보이는 개인도 SNS를 통한 의사소통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착금단에 부정상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불안애착은 집착금단, 과잉소통, 시간투자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세 차원의 또래애착 가운데 가장 SNS중독경향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회피애착은 과잉소통, 시간투자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회피애착이

표 1. 기술적 통계분석표

잠재변인	측정변인	요인부하량	분산추출지수	개념신뢰도
안정애착	안정애착1	.75	.704	.876
	안정애착2	.87		
	안정애착3	.89		
불안애착	불안애착1	.71	.533	.774
	불안애착2	.75		
	불안애착3	.73		
회피애착	회피애착1	.75	.555	.714
	회피애착2	.74		
자존감	자존감1	.86	.714	.882
	자존감2	.90		
	자존감3	.77		
자존감 안정성	자존감안정성1	.83	.585	.808
	자존감안정성2	.72		
	자존감안정성3	.74		
SNS중독	집착금단	.91	.781	.914
	과잉소통몰입	.87		
	시간투자	.87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4	5	6	7	8	9
안정애착	1								
불안애착	-.26**	1							
회피애착	-.42**	.37***	1						
자존감	.41**	-.42***	-.18**	1					
자존감안정성	.10**	-.43***	-.10*	.45**	1				
SNS 중독경향성	.04	.33**	-.15**	-.27**	-.38**	1			
집착금단	-.05	.37**	-.08	-.33**	-.38**	.95**	1		
과잉소통	.13**	.26**	-.20**	-.19**	-.34**	.93**	.79**	1	
시간투자	.04	.25**	-.14**	-.21**	-.31**	.88**	.79**	.77**	1
평균	4.03	2.51	2.51	3.60	3.04	1.92	1.75	2.13	2.00
표준편차	.68	.70	.81	.72	.68	.62	.60	.73	.75
왜도	-.88	.10	.10	.72	.68	.19	.31	-.23	.39
첨도	1.21	-.37	.15	-.46	.03	-.68	-.42	.13	.33

* $p < .05$, ** $p < .01$, *** $p < .001$

주. 안정애착=1, 불안애착=2, 회피애착=3, 자존감=4, 자존감안정성=5, SNS 중독경향성=6

집착금단=7, 과잉소통몰입=8, 시간투자=9

높을수록 SNS를 통한 의사소통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은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에 대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930$, $CFI=.946$, $RMSEA=.069$ 로 나타났으며, 모두 측정변수들의 모형 채택을 위한 적합도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였다. TLI 와 CFI 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 는 .05~.08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71에서 .91 사이에 분포하여 잠재변인이 $\alpha=.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17개의 측정변

인으로 6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부분매개모형, 그리고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이중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LI=.930$, $CFI=.946$, $RMSEA=.069$ 로 모형 채택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이 때 연구모형은 구성개념 간 모든 경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가 앞서 추정된 측정모형과 동일하다.

그런데,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안정애착에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회피애착에서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 자존감에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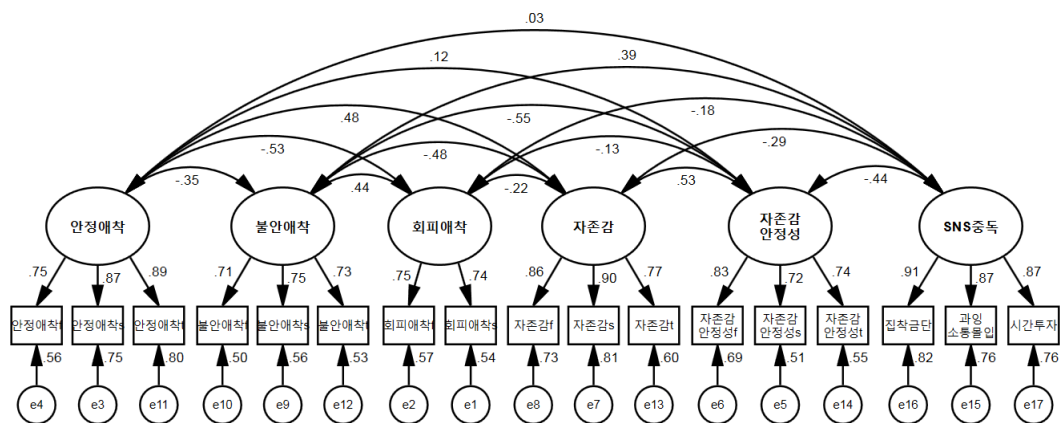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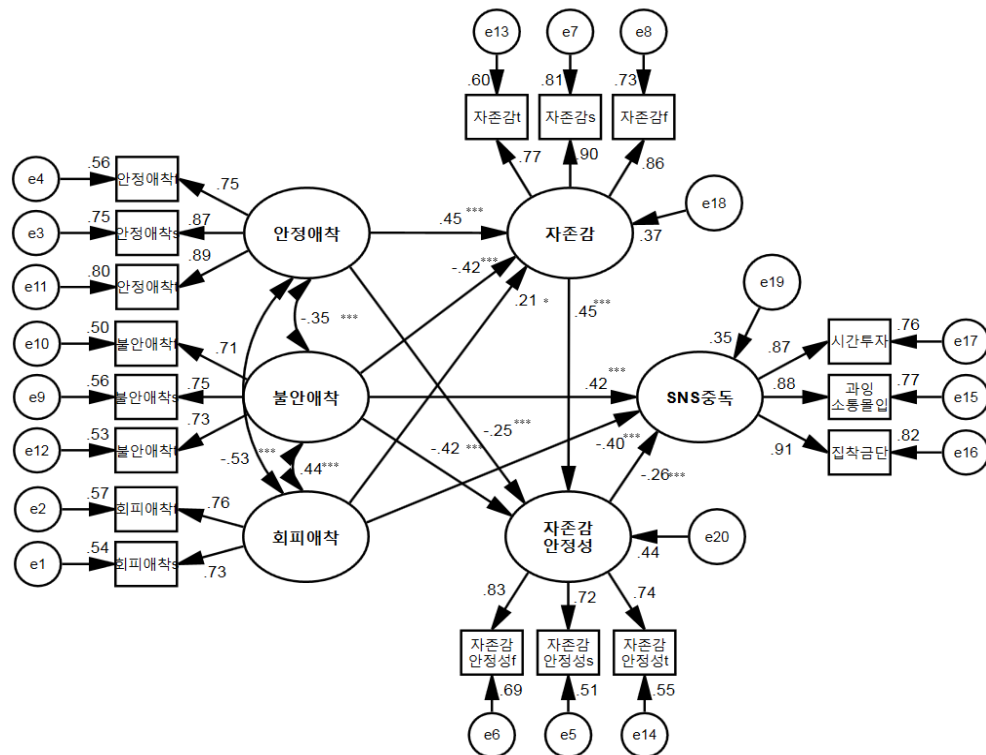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CI)
1. 연구모형	348.94***	104	.946	.930	.069 (.061~.077)
2. 수정모형	350.68***	107	.946	.932	.068 (.060~.076)

*** $p < .01$

주. 수정모형-연구모형: $\Delta\chi^2=1.74$, $\Delta df=3$, $p > .05$

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가 104에서 107로 3 증가한 데 비해 χ^2 의 감소량이 1.74로 자유도 3에 대한 임계치 7.81을 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최종모형

았다. 그 결과 모형 내 제약이 적고 자유도가 높은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으며, 수정된 최종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SNS 중독경향성의 최종모형의 적합도 경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비표준화 계수(B)와 t 값을 통해 매개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표준화된 계수(β)를 통하여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t 값은 ± 1.96 보다 클 때 유의미하며, 경로 계수의 절대값은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50이면 중간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Klein, 2005/2014).

안정애착은 자존감에 .45($p < .001$)로 정적 경로를 보였으나, 자존감 안정성에 -.25($p < .001$)로 부적 경로를 보이고 있고, 불안애착은 자

존감에 -.42($p < .001$), 자존감 안정성에 -.42($p < .001$)로 부적경로를, SNS 중독경향성에는 .42($p < .001$)로 정적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회피애착은 자존감에 .21($p < .001$)로 정적 경로를, SNS 중독경향성에는 -.40($p < .001$)으로 부적 경로를 보인다. 한편, 자존감은 자존감 안정성에 .45($p < .001$)로 정적 경로를, 자존감 안정성은 SNS 중독경향성에 -.26($p < .001$)으로 부적 경로를 나타내었다.

경로검증에서 살펴볼 것은 안정애착이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45($p < .001$)로 양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25($p < .001$)으로 음의 방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는 상관분석과 다른 결과로서, 이에 안정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존감 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고,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다시 다중 회귀분석을 하여 자존감의 억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안정애착에서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는 .097($p < .001$)로 양의 방향이었으나, 자존감을 매개로 하였을 때는 -.103($p < .001$)으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β	t
1	안정애착 → 자존감	.52	.07	.45***	7.79
2	안정애착 → 자존감안정성	-.20	.05	-.25***	-4.50
3	불안애착 → 자존감	-.49	.07	-.42***	-7.10
4	불안애착 → 자존감안정성	-.39	.06	-.42***	-6.58
5	불안애착 → SNS중독경향성	.42	.08	.42***	5.50
6	회피애착 → 자존감	.20	.07	.21**	3.08
7	회피애착 → SNS중독경향성	-.36	.06	-.40***	-6.21
8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33	.05	.45***	7.24
9	자존감안정성 → SNS중독경향성	-.25	.07	-.26***	-4.23

** $p < .01$, *** $p < .001$

로 음의 방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일부분 또는 전부를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제3의 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절대 상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억제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회귀

분석 결과 절대값 점수가 .097에서 -.103으로 다소 커져 자존감의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상관의 방향과 경로계수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난 경우에도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 조화진, 서영석(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수정된 최종모형에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SNS 중독

표 5.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유의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안정애착	→	자존감	.45** (.33 ~ .56)		.45** (.33 ~ .56)
불안애착	→	자존감	-.42** (-.54 ~ -.29)		-.42** (-.54 ~ -.29)
회피애착	→	자존감	.21** (.08 ~ .36)		.21** (.08 ~ .36)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45** (.29 ~ .58)		.45** (.29 ~ .58)
안정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25** (-.38 ~ -.12)	.21** (.13 ~ .29)	-.04 (-.19 ~ .09)
불안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42** (-.54 ~ -.31)	-.19** (-.27 ~ -.12)	-.61*** (-.71 ~ -.49)
회피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09** (.04 ~ .17)	.09** (.04 ~ .17)
안정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SNS중독		.01 (-.02 ~ .06)	.01 (-.02 ~ .06)
불안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SNS중독	.42** (.24 ~ .75)	.16** (.07 ~ .27)	.58** (.46 ~ .75)
회피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SNS중독	-.40** (-.57 ~ -.29)	-.03** (-.0 ~ 5-.00)	-.43*** (-.57 ~ -.29)
자존감안정성	→	SNS중독	-.26** (-.40 ~ -.12)		-.26** (-.40 ~ -.12)

* $p < .05$, ** $p < .01$, *** $p < .001$

경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합한 값이 된다. 효과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검증방법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통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정하였다. 여기서 애착이 SNS 중독경향성 직접효과는 없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을 설명해 주는데 유의하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이고, 애착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이고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간접효과가 둘 다 있는 경

우는 부분매개효과라고 한다.

이때 다중매개의 경우,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간접효과만 도출되고 각각의 매개변수와 관련된 개별 간접효과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여 여기서는 다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활용하였다.

팬텀변수를 활용해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를 살펴보면, ‘안정애착->자존감->자존감안정성->SNS 중독경향성’, ‘안정애착->자존감안정성->SNS 중독경향성’, ‘불안애착->자존감->자존감안정성->SNS 중독경향성’, ‘불안애착->자존감안정성->SNS 중독경향성’, ‘회피애착->자존감->자존감안정성->SNS 중독경향성’을 거치는 5개 경로는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각각의 개별간접효과들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간접효과 중 안정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모두 거치는 간접효과(95% CI: -.09 ~ -.02)와 자존감 안정성만을 거치는 간접효과(95% CI: .03 ~ .1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안애착이 SNS를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95% CI: .25 ~ .64), 간접효과 중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95% CI: .02 ~ .08),

표 6.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매개효과들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95% CI	
		low	upper
안정애착 →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 SNS중독	-.05**	-.09	-.02
안정애착 → 자존감안정성 → SNS중독	.06***	.03	.11
불안애착 →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 SNS중독	.04**	.02	.08
불안애착 → 자존감안정성 → SNS중독	.06**	.02	.11
회피애착 →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 SNS중독	-.04**	-.04	-.01

** $p < .01$, *** $p < .001$

그리고 자존감 안정성만을 거치는 경우(95% CI: .06~.11)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피애착의 경우 SNS중독을 직접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였고(95% CI: -.53~ -.25),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모두 거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95% CI: -.04~-.01). 이로써 안정, 불안, 회피애착 모두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을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관련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들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독립변인 중 안정애착은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영희 등(2012), 김미진(2014)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에 대해 안정애착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존감이 높았다는 Greenberg, Siegel과 Leitch(1983), Armsden과 Greenberg(1987), McComick과 Kennedy(199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또래 사이에 소통과 정서적 적응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의 경우, 하위변인인 과잉소통 및 몰입에만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집착 및 금단이나 과도한 시간투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잉소통 및 몰입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안정애착을 보이는 개인도 오프라인의 대인관계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도구로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Nadkarni와 Hofmann(2012)의 연구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SNS에 대해 지나친 집착이나 과잉 시간 투자는 아니더라도 또래간 애착 유지를 위해 소통과 몰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어느 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불안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의 모든 하위 변인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애착 차원 중 가장 SNS 중독경향성과 상관이 높은 차원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이 높은 개인의 경우, 혼자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항상 안정이 필요하다(Brennan, Bosson, 1998)는 점을 감안하면 SNS에 몰입함으로써 이러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회피애착은 다른 두 애착과 달리 집착금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Oldmeadow 등(2013)의 연구에서도 불안애착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빈번하게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회피애착은 오히려 덜 사용하고 덜 개방적이며 덜 긍정적이라고 하였는데, 회피애착의 특성상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론적으로 애착의 차원에 따라 개인이 SNS에 몰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과 그 하위 변인들에 대해서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Steinfield 등(2007), Tazghini와 Siedlecki(2013), 황희은(201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자존감이 낮은 중학생일수록 SNS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SNS를 함으로써 대면관계에서 부족한 다양한 간접경험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NS에 점점 더 몰입하고 중독경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였고, 여기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안정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가 상관에 있어서도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 회피애착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 자존감 안정성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에 비해 자존감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자존감보다 자존감 안정성이 심리적 중독이나 병리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고 통계적 모형수정을 취한 것에 대해 Kline(2005/2014)은 연구모형을 만들 때 정교하게 하지 않고, 자료수집 후에 모형을 수정하는 것은 구조방정식의 오류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종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안정애착은 자

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를 거쳐서 SNS 중독경향성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애착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SNS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며(Ozad & Uygurer, 2014), 청소년들이 SNS에서 기회를 갖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타인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Livingstone, 2008),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애착 결함을 위해 SNS를 사용(Lee, 2013)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의미있는 매개변인임을 나타낸다. 안정애착의 경우,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존감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서 더 분명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모두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안정애착의 경우,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은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Bolger 등(1998), 정미선(2010), 조민규 등(2014)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나, 자존감에서 자존감 안정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존감의 억제효과로 인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값이 정적에서 부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정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중요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애착이 과잉 활성화되어있는 불안애착은 친밀감을 갈망하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현실에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한편, 페이스북 북과 같은 SNS 상에서 애착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기표현 능력을 발휘한다(Oldmeadow et al., 2013)하였다. SNS상에서 문자나 사진, 링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만족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향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래애착 가운데 불안애착이 가장 강력한 매개효과와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을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기주장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와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맥락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하고(Brennan & Bosson, 1994),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Griffin & Bartholomew, 1998), 페이스북 프로필의 삭제를 고려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본다고 행복해하지도 않았다(Oldmeadow et al., 2013). 이는 회피애착이 또래관계에서 애착의 효과를 보이는 SNS에 그다지 몰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회피애착이 SNS 중독경향성과 약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애착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 Oldmeadow 등(2013)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불안애착과 달리 회피애착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로써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증시여기는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어떻게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또래소통을 위해 SNS의 과다사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SNS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인들 중 또래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이 SNS에 몰입하는 이유와 SNS 중독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또래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안정, 불안, 회피의 차원으로 살펴봄으로써 그간에 이루어진 애착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였다. 넷째, 또래애착과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은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이 변인들이 SNS 중독경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또래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애착차원에 따라 매개를 통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안정애착은 자존감을 거쳐서만, 불안애착은 자존감과 자

존감 안정성을 모두 거쳐서, 회피애착은 매개를 거치지 않고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보이는 중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래애착의 특성에 따라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 개입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되거나 불안하거나 회피적인 또래애착을 보이는 중학생이 SNS 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SNS 중독경향성이 있는 중학생들에게 사회성 훈련이나 자존감 향상, 자존감 안정화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도움을 주는데 이 연구가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애착의 세 하위요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매개변인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회피애착의 경우,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심리내적 변인들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중매개변인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자존감의 높고 낮은 차원, 자존감 안정성의 높고 낮은 차원으로 나누어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취하는 통계적 모형수정을 취하였으나,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좀더 고민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연구모형의 경로를 측정모형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간명성의 원리

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살펴본 것으로 SNS 중독의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중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또래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SNS 중독경향성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중학생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검자의 고의적인 왜곡 응답,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기보고형식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3). 남녀 중학생의 대인불안과 자기제시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아 (2009). 학대경험 청소년의 비행 요인에 관한 탐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김미진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의 관계.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2010). 또래동조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

- 는 영향: 보호요인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 (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3(2), 149-159.
- 김태련, 조혜자, 이선자, 방희정, 조숙자, 조성원, 김현정, 홍주연, 이계원, 설인자, 손원숙, 홍순정, 박영신, 손영숙, 김명소, 성은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노향희 (2007).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향, 김완일 (2014).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존감안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10), 475-501.
- 박승민, 강민철, 김은하 (2015).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중고등학생 비교; 잠재 상태·특성 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63-84
- 박용기 (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3(4), 305-342.
- 서거 (2013). 페이스북 이용중독이 대학생의 사회성 및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미옥, 이승희 (2011).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5(20), 1-20.
- 안정민 (2011). SNS 이용자의 이용형태와 성격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윤경 (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성범, 김성연, 임승우, 백인규, 낙덕현, 양은주 (2012). 남녀청소년의 자존감, 친구애착,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93-1113.
- 우형진, 이정기 (2012).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 속성, 미디어 이용량,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인터넷 포르노 몰입 및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 연구* 16(3), 55-84.
- 유현숙 (2013).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 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 (201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중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형 SNS중독지수(KSAD)제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1(1), 255-265.
- 이선자 (2013).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불만이 스마트폰의 SNS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전효정 (2006).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애착유형과 심리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13(3), 137-159.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조다현 (2013). SNS중독경향성과 친구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중학생이 지각

- 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29-54.
- 조성현, 서경현 (2013). SNS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세경, 박규태, 이봉규 (2012).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모바일 SNS 애착이 SNS 상호작용과 이용 후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4(2), 159-200.
-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한국판 청소년 또래애착 척도 타당화 연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73-296.
- 최은진, 염우성, 이선우, 김 솔, 이청하, 김주환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행태연구: 자기결정성, 긍정적 정서, 스마트폰 미디어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11-916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 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황희은 (2014). 자존감,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 지향성이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K.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entall R. P., Myin-Germeys I., & Angela Smith. (2011). Hypomanic personality, stability of self-esteem and response styles to negative m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olger, K. E., Pacc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 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creac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Brennan, K. A., & Bosson, J. K. (1998). Attachment styl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d reactions to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base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99-714.
-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R. Montemeyer, G. R. Adams, and T. P. Gullotta(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 adolescence*(7-36). Thousand Oaks, CA: Sage.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2(5), 373-386.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or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UK: Jessica Kingsley.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y, L. C. (1989). Stability of self-esteem: Assessment, correlates, and excuse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60(3), 621-644.
- Kernis, M. H., & Goldman, B. M. (2005). Stability and variability in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line, Rex. B. (2014).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5년에 출판).
- Koc, M., & Gulyagci, S. (2013). Facebook Addiction Among Turkish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sychological Health, Demographic, and Usage Characteristic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4), 279-284.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 Lee, D. Y. (2013).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in building social from a social networking site: The interplay of anxiety and avoidance. *Computer in Human Behavior*, 29(4), 1499-1509.
- Livingstone, S. (2008).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New Media & Society*, 10(3), 393-411.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oreno, M. A, Jelenchick, L. A., Egan, K. G., Cox, E., Young, H, Gannon, K. E., & Becker, T. (2011). Feeling bad on Facebook: Depression disclosures by college students on a social networking site. *Depression and anxiety*, 28(6), 447-455.
- Nadkarni, A., & Hofmann, S. G.(2012). Why do people use Faceboo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3), 243-249.
- Nitzburg, G. & Barry A. Farber. (2013). Putting up emotional(Facebook)walls? attachment status and emerging adult's experiences of social networking sit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69(11), 1183-1190.
- Noser, A., & Zeigler-Hill, V. (2014). Self-esteem Instability and the Desire for Fame. *Self and Identity*, 13(6), 701-713.
- Oldmeadow, J. A, Sally Quinn, & Rachel Kowert. (2013). Attachment style, social skills, and Facebook use amongst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1142-1149.
- Ozad, B. E, Uygurer, G (2014). Attachment need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2, 43-52.
- Pelling, E. L., & White, K. M. (200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lied to young people's use of social networking web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2(6), 755-75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5). Self concept and psychological self-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r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205-240). Orlando, FL:Academic Press.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praggins, A. (2009). *Problematic use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 for college students: Prevalence, predictors, and association with well-being* Ph.D. University of Florida.
- Steinfeld, Ellison, & Lampe (2008).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434-44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Norton & Company.
- Tazghini, S., & Siedlecki, K. L. (2013). A mixed method approach to examining Facebook use and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827-832.
- Wan, C. (2009). *Gratifications & Loneliness as Predictors of Campus-SNS Websites Addiction & Usage Patter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S Thesis.
- Watson, B. R. (2007). *Speaking up in the 21st century: The defect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internet self-efficacy on use of social networking websites*. M. A.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 Wilbur, Smith (2005).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lkinson, R. B. (2008).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the 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1270-1279.
- Wilkinson, R. B. (2008).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79-493.

원 고 접 수 일 : 2015. 4.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5. 9. 8
게 재 결 정 일 : 2015. 10. 28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the tendency of SNS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Yu Hyun Wook

Paju youth welfare counseling center

Hong Hye You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and investigate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For this purpose, 492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and Seoul completed the related survey.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ajor variables and the verif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howed the path which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influenced SNS addiction tendency differ by the type of attachment. Secondly, stable attachment did not directly affect SNS addiction tendency yet showed ful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Thirdly,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showed doub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stable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tendencie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er attachment, stabl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self-esteem, self-esteem stability, Social Network Service(SNS) addiction tendency